

다가오는 조기전형 마감일, 꼭 기억해야 할 것들



▲ 조기 전형에 접수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입시에서 조기 전형 방식인 얼리 액션(EA) 또는 얼리 디시전(E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들의 EA과 ED마감일은 대체로 11월 1일~11월 15일이다. 조기 전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시 무엇인가 빠뜨리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이점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ED 프로그램은 구속력이 있으며 1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EA는 구속력이 없지만 1개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ED 2 프로그램은 마감일이 늦지만, 이것 또한 ED라서 구속력이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지 분명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ED 1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데 학교로부터 '보류' (defer) 통보를 받고 정시지원(RD)으로 넘어간다면, 일단 ED의 구속력에서는 벗어난다. ED 1 대학이 RD에서 나를 합격시킬 경우 그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ED 1대학에 합격하지 못해 ED 2로 다른 대학에 지원하고 그 대학에 합격한다면, ED 2 대학에 의무적으로 진학해야 한다. 이처럼 ED와 EA 프로그램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기 전형에는 ED, EA 뿐만 아니라 롤링 어드미션(rolling admission), 운동 선수 리크루트, 그리고 특정 학생에게 대학이 보내는 '라이클리 레터' (likely letter) 등도 있다.

만약 대학을 결정할 때 재정보조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 조기전형으로 지원할지 말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조기 전형은 여러 다른 대학들이 제시한 재정보조 패키지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RD보다 훨씬 적다.

특히 구속력이 있는 ED 프로그램으로 합격했으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처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연락해서 불이익 없이 ED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재정 보조를 충분히 받기를 바라면서 ED에 지원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른다. 자신의 재정 상황이 확실하지 않다면 RD로 지원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조기 전형은 재정 보조 및 장학금에도 일찍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학들은 꾸준히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캠퍼스 시설을 업데이트하며, 교수진을 새로 영입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떠나 보낸다. 그러므로 원서를 내기 전에 해당 대학에 최근 주요한 변화가 없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재정 지원이 가장 좋은 미국 대학

입학 허가 비율, SAT/ACT와 같은 표준화 시험 성적……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아카데믹한 기준 말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가장 좋은 대학이나 학생이 가장 행복한 대학, 기숙사가 가장 좋은 대학, 학생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대학 등 재미와 관심을 끄는 평가 항목들도 있다.



▲ Vassar College's Thompson Library. 사진=shutterstock

'프린스턴 리뷰'가 ▶학교가 얼마나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해당 지원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받은 학생의 비율, 해당 학생의 필요가 충족된 비율, 필요가 완전히 충족된 학생의 비율에 대한 학교 보고 데이터 ▶학생들이 받는 재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학생 설문조사 데이터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재정 지원이 좋은 사립, 공립 대학 순위를 선정했다. 이 매체가 선정한 동문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미국 대학(1487호), 학생에 대한 진로 서비스가 가장 좋은 미국 대학(1488호)을 소개한데 이어 재정 지원이 좋은 대학 순위를 소개한다. () 속은 학교 소재지와 학생수이다.

먼저 사립대학 순위이다. 1위는 Vassar College(Poughkeepsie, NY, 2,459)가 선정됐다. 2위에는 Princeton University(Princeton, NJ, 5,604)가 이름을 올렸다. 3위~10위에는 Yale University(New Haven, CT, 6,645), Pomona College(Claremont, CA, 1,761), Vanderbilt University(Nashville, TN, 6,886), Williams College(Williamstown, MA, 2,15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Pasadena, CA,

982), Haverford College(Haverford, PA, 1,420),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St. Louis, MO, 8,132), Carleton College(Northfield, MN, 2,034)가 차례로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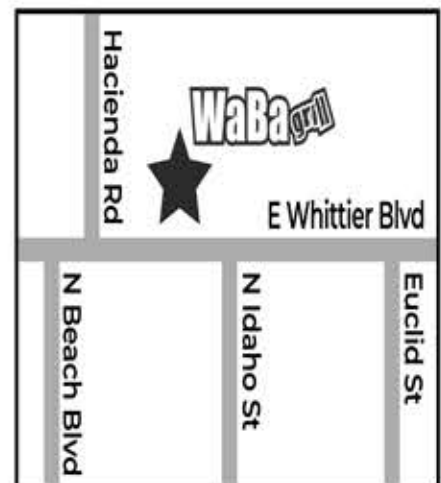
공립대학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위는 University of Virginia(Charlottesville, VA, 17,496)가, 2위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Chapel Hill, NC, 20,210)가 차지했다.

3위~10위에는 Truman State University(Kirksville, MO, 3,622), New College of Florida(Sarasota, FL, 669), City University of New York-Hunter College(New York, NY, 18,758),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Ann Arbor, MI, 32,695),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Raleigh, NC, 26,254),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La Jolla, CA, 33,096),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Madison, WI, 37,230),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Minneapolis, MN, 39,248)이 각각 순위에 올랐다.

이외 더 다양한 기준의 대학 순위는 프린스턴리뷰 홈페이지(www.princetonreview.com)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